

13) 정 구

정구는 서양의 테니스를 동양인의 체격에 맞게 라켓을 개량하고 부드러운 고무공을 창안하여 1885년경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현 동경교육대)에서 시작한 것이 효시이다. 우리나라에는 1920년 초엽에 들어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테니스에 비해 장비가 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1930년대에는 우리나라팀이 각종 연식대회에서 연전 연승하는 등 빛나는 전과를 올려 연식정구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순천에서는 1920년경 일본 유학생 정문기가 정구를 선보였다고 하며, 그후 정중호(후위)와 하동식(전위)은 조를 이뤄 전라도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가는 곳마다 우승을 했다. 특히 이들은 코트 매너가 좋았다고 한다. 당시 구종태와 임철호 등도 지역대표 선수로 명성을 떨쳤다. 이들은 이때부터 약 15년간 선수생활을 하면서 인근 지역대회는 물론 대도시 대항에도 출전, 거의 우승을 독차지하였다.

1935년에 이르러 김용두가 민선정구회장을 역임하고 장무열·김인중 선수가 활약하다가 해방을 맞아 점차 쇠퇴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민선체육회는 관선으로 바뀌면서 황석기가 초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이때부터 정구는 봄을 타고 김용근·박형철·문계선·김상윤·김학순·유용실·손관옥 등이 임원 및 선수로 활약, 1953년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다.

1960년 말경에는 황석기·문계선·신충균·김병옥·김용근·황의본·김성곤·김정현 등이 법원 코트 및 철도청 코트에서 활약하였다. 1973년 제1회 전남구락부 대항전에서 황의본·김형화·정영무·강창학·김정현·윤기옥·이종길·박형순 등이 출전하여, 최초로 결승전을 야간으로 치루는 접전 끝에 우승하여 순천 정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3년 이후 연식정구는 테니스에 밀려 다른 지역에서는 쇠퇴하였지만 이 지역만큼은 조규학 회장이 시내 각 기관장 정구대회를 유치하고 70여 명으로 구성된 순천정우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좀처럼 정구의 열은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각급 학교에까지 보급되었다.

1974~1980년에 황의본·김형화·정영무·김정현·윤기옥·이종길·유봉호·강창학·김성곤·박형순 등이 중심이 되어 영·호남 친선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부산·마산·진주·울산·함안·광주·목포·무안·해남·장흥·여수 등지에서 300~3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호남 일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대회였다. 1976년에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형 은컵 2개를 내놓아 중앙정보부장배정탈대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1977년에는 황의본·정영무 조가 전국체전에서 우승하여 일본·대만 등으로 친선경기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순천대학의 김상학 교수의 지도로 여자팀이 창단되어 1982년 제6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필두로 1992년까지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승 및 상위 입상을 하여 이 고장의 명예를 빛냈다. 또한 1992년 이후 순천대에 남자팀이 창단되어 전국 최정상을 달리고 있으며, 특히 1994년 동경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유영동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현재 순천남교·순천북교·삼산중·순천여중·매산고교·순천대학교·순천시청에 정구팀이 있다.